

《九歌》 주석과 번역

徐 盛*

《九歌》는 11편으로 이루어진 祭神歌이다. 11편 가운데 10편인 <東皇太一>, <雲中君>, <湘君>, <湘夫人>, <大司命>, <少司命>, <東君>, <河伯>, <山鬼>, <國殤>은 각각 하나의 신을 대상으로 지어졌지만, 마지막 <禮魂>은 제사를 종결할 때 쓰이는 送神歌로 보인다.

王逸은 “《九歌》는 屈原의 작품이다. 초나라 수도 郢의 남쪽 고을들과 沅水와 湘水 일대 사이에서는 鬼神을 믿고 제사지내기를 좋아하는 풍습이 있었다. 제사가 열릴 때면 반드시 노래와 음악을 짓고 북을 치고 춤을 추며 諸神을 기쁘게 하였다. 屈原이 추방되어 이 지역을 떠돌 때 근심에 고통스러웠고 걱정이 들끓어 밖에 나갔다가 이 지방 사람들이 제사를 올리고 노래하고 춤추는 것을 보았다. 그 가사가 鄙陋한 것을 보고 이에 《九歌》를 지었다.”고 하였다. 朱熹는 이 설의 연장에서, 屈原이 민간의 祭歌의 기초 위에서 “가사를 고치고, 심한 표현은 삭제하여” 《九歌》를 지었다고 했는데 이 의견이 역대로 가장 영향력 있게 퍼졌다. 일부 학자는 《九歌》는 순전히 민간의 祭神歌이지 굴원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보기도 한다. 그러나 《九歌》의 언어와 작품이 屈原의 다른 작품들과 일치하거나 비슷한 경우가 많은 것을 보면 朱熹의 의견이 옳다고 해야 할 것이다. 또 낭만적인 내용과 정취를 보면 굴원이 추방된 이후가 아니라 오히려 추방되기 전에 지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九歌”라는 명칭은 <離騷>, <天問>, 《山海經》에서 모두 夏나라 啓의 통치 시대의 음악으로 언급된다. 그러나 하나라에서 전국시대 초나라까지의 기간이 길고 다른 전적에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들을 동일시하기는 어려우므로 여기에서

* 열린 사이버대 實用語文學部 專任講師

의 “九歌”는 하나라 음악과는 별도의 노래로 보아야 할 것이다.

《九歌》가 9편이 아니고 11편이라는 점에 대해서 후대에 오수록 여러 의견이 나왔다. 송대 朱熹는 그 이유를 모른다고 말했지만, 명대 黃文煥은 <山鬼>, <國殤>, <禮魂>을 한편으로 쳤고, 청대 蔣驥는 <湘君>과 <湘夫人>을 한 편으로 치고 <大司命>과 <少司命>을 한 편으로 쳐서 9편으로 보기도 했다. 聞一多是 <東皇太一>을 迎神曲으로 보고 <禮魂>을 송신곡으로 간주하여 실제 제신가는 9편이라 하였다. 馬茂元은 “九”를 極數, 즉 많은 편수를 의미한다고 했고, 金開誠은 아예 “九”라는 숫자가 편수가 아니라 가무의 형식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한 대 辭賦에 ‘七’이나 ‘九’는 내용의 단락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것을 보면 원래 아홉 개의 주요 장으로 나누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九歌》에는 비록 ‘巫’라는 말이 직접 나오진 않지만 ‘靈’이란 말이 이를 가리킨다. 제사를 올리는 주체로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說文解字》에는 “巫는 祭主이자 신에게 말을 전달하는 사람이다. 여자는 無形을 섬길 수 있으며 춤으로 신이 내려오게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작품의 노래 방식과 관련해서는 陳本禮가 비교적 자세하게 언급하기 시작하였다. “《九歌》의 음악은 어떤 것은 男巫가 노래하며, 어떤 것은 女巫가 노래한다. 또 어떤 것은 男巫와 女巫가 함께 춤추고 노래하며, 어떤 것은 한 명의 巫가 노래하면 群巫가 화답한다.” 그러므로 《九歌》의 노래 방식은 작품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여기서는 대체로 金開誠의 의견에 많이 따랐다. 각 편에서 노래하는 주체는 모두 神巫로 분장한 鬼神이다. 天神을 노래하는 5편인 <東皇太一>, <雲中君>, <大司命>, <少司命>, <東君>은 천신으로 분장한 主巫와 관중을 대표하는 群巫가 번갈아 가며 노래한다. 다만 <東皇太一>에서는 主巫는 제단에 나와 있을 뿐 노래하지는 않는다. 地神을 노래하는 4편인 <湘君>, <湘夫人>, <河伯>, <山鬼>는 主巫가 혼자 춤추고 노래할 뿐 群巫는 나오지 않는다. <國殤>은 좀 특별한 경우로 天神은 아니지만 主巫와 群巫의 對唱 형식을 취하는데, 이는 조상신을 천신과 동일시하는 관념의 투영으로 볼 수 있다. <禮魂>은 마지막에 제사를 종결하며 부르는 송신가로 群巫가 합창한다.

東皇太一

<東皇太一>은 《九歌》의 첫 번째 작품으로, 존귀한 천신인 동황태일에게 제사지낼 때 부르는 노래이다. “東皇太一”이란 이름에 대해서 《文選》五臣注에서는 太一은 별 이름이자 하늘의 존귀한 신이다. 초나라 동쪽에서 東帝와 함께 제사지내므로 東皇이라 하였다.”고 하였다. 《史記·封禪書》에는 “天神 가운데 귀한 것으로는 太一이 있는데, 五帝가 太一을 보좌한다. 옛날 天子는 봄가을에 동남의 郊에서 太一에게 제사했다.”고 했다. 이들 기록을 볼 때 東皇은 동쪽에서 제사하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붙여진 말이고, 太一은 도가에서 천신을 “元始”라고 하듯이 추상적인 개념을 신의 이름으로 만든 경우로 보인다. “東皇太一”은 곧 후대의 “하느님”의 개념과 유사하다.

노래 방식을 보면, 主巫로 분장한 東皇太一은 다만 제단에 나와 위엄과 고귀함을 드러낼 뿐이고, 群巫가 노래하고 춤추며 동황태일에게 제물을 드리며 즐겁게 한다.

吉日兮辰良，
穆將愉兮上皇。
撫長劍兮玉珥，
璆鏘鳴兮琳琅。
瑤席兮玉瑱，
盍將把兮瓊芳。
蕙肴蒸兮蘭藉，
奠桂酒兮椒漿。
揚枹兮拊鼓，
疏緩節兮安歌。
陳竽瑟兮浩倡。
靈偃蹇兮姁服，
芳菲菲兮滿堂。
五音紛兮繁會，
君欣欣兮樂康。

吉日에 좋은 날
공경스레 上皇을 기쁘게 모시자
손에는 장검의 옥손잡이 거머쥐고
몸에는 달강이며 우는 패옥 소리
옥같이 깨끗한 자리 깔고 옥 鑽石 놓고
瓊玉 같은 꽃을 모아 올려 드리리
헤초로 싼 고기 난초에 받치어
향기로운 桂酒와 椒漿 함께 올리자
북채를 들어 북을 두드리고
완만한 박자에 상서로운 가락 맞추어
생황과 거문고 벌여 놓고 크게 노래부르자
신내린 예쁜 神巫의 화려한 옷이여
뿜어나는 향기가 사당에 가득하구나
온갖 악기 소리 어지러이 뒤섞이니
東皇은 기뻐하며 편안하고 즐거워하네

○辰良 : 곧 良辰, 운을 맞추기 위해 음절을 전도시켰다. ○穆 : 공경하다. 여기서 공경하게. 《楚辭》에서 자주 보이는 부사어 선행 용법. ○上皇 : 東皇太一. ○撫 : 잡다. ○玉珥(옥이) : 옥으로 장식된 칼자루. ○璆鏘(구장) : 달강달강. 옥이 서로 부딪치며 나는 소리. ○琳琅 : 옥의 이름. 여기에서 장검을 쥐고 패옥을 찬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느냐는 문제에 대해 王逸과 朱熹 등 많은 연구자들이 祭主의 모습이라고 했지만 일부 학자들은 東皇太一의 모습으로 보기도 한다. 여기서는 전자를 취한다. ○玉璫 : 옥으로 만든, 자리가 말려 날리지 않게 누르는 鎮石. ○盍(합) : 王逸은 어찌 하지 않느냐는 何不로 풀이했지만 뜻이 통하지 않는다.盍에는 습의 뜻이 있으므로 꽃을 모으다로 풀이했다. ○肴蒸(효증) : 肴는 뼈가 붙어 있는 고기, 蒸은 바치다는 뜻. 그러나 肴蒸이 제사나 잔치 때 쓰이는 짐승의 허벅지 고기란 뜻이 있으므로 이 뜻을 취해도 된다. ○藉(자) : 깔다, 받치다. ○奠(전) : 祭需를 올린다. ○椒漿 : 산초를 넣어 만든 향기로운 술. 漿은 약한 술을 말한다. ○枹(포) : 북채. 원래는 떡갈나무의 뜻이나 같은 음을 취해 桴(부)의 뜻이 되었다. ○箏瑟 : 箏는 생황의 일종으로 36개의 혀가 있다. 瑟은 거문고 종류로 25개의 현이 있다. ○靈 : 神巫를 가리킴. 《九歌》 중의 靈은 神의 모습으로 분장한 巫를 가리킨다. 여기서는 동황태일의 모습으로 차려입은 神巫이다. 이 구 “靈偃蹇兮姱服”에 대해 洪興祖는 “신이 내려와 무당에게 기탁한 것을 말한다.”고 했고, 朱熹도 “신이 내려와 무당에 기탁하였는데 무당의 모습이 아름답고 의복이 훌륭하다”고 말했다. ○偃蹇 : 偃蹇에는 높다, 번성하다, 아름답다 등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위엄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君 : 동황태일을 가리키는 존칭어.

《九歌》 가운데 첫 번째 작품으로 존귀한 天神을 제사하는 노래이다. 하늘의 신은 만물과 인간의 일을 주재하는 강력한 존재이지만, 여기서는 신의 형상이나 그 공덕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다. 다만 神巫들이 공경스런 태도로 춤추고 노래하며 “기쁘게 모시는” 분위기 속에서 신의 모습이 어렴풋이 그려질 뿐이다. 虛實 가운데 虛의 기법이 전편을 장악하며 이것이 곧 사람들이 느끼는 하느님에 대한 모습이자 존재감이기도 하다.

雲中君

<雲中君>은 雲神을 제사하는 노래이다. 왕일은 “雲神은 豐隆이다. 屏翳라고도 한다”고 했다. 《周禮·大宗伯》에서는 風師와 雨師에 제사지낸다는 기록이 있을 뿐 雲師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漢書·郊祀志》에 전국시기 쑤나라의 巫가 五帝, 東君, 雲中君을 제사하였다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 전국 시대에 雲師에 대한 제사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雲中君을 구름의 신이 아닌 다른 신으로 보는 학설이 있어왔는데, 청대 徐文靖은 雲中을 雲夢澤이란 뜻으로 보아 水神이라 했고, 또 다른 학자들은 月神 혹은 雷神이라 하기도 했다.

노래 방식을 보면, 雲中君으로 분장한 主巫와 관중을 대표하는 群巫가 번갈아가며 구름 신의 모습과 특징을 찬송한다. 첫 4구는 群巫의 짧은 迎神曲으로 본다면 중간 4구는 主巫의 독창이며, 후반 6구는 다시 群巫의 送神曲으로 볼 수 있다.

浴蘭湯兮沐芳,
華采衣兮若英。
靈連蜷兮既留,
爛昭昭兮未央。
蹇將憺兮壽宮,
與日月兮齊光。
龍駕兮帝服,
聊翱遊兮周章。
靈皇皇兮既降,
森遠舉兮雲中。
覽冀州兮有餘,
橫四海兮焉窮。
思夫君兮太息,
極勞心兮憊懣。

난초 물에 몸 씻고 구릿대에 머리 감아
화려한 빛깔의 옷은 꽃송이 같구나
神巫의 몸에 神이 이미 내려왔으니
찬란히 빛나는 모습 한이 없구나
아, 이제 壽宮에 편안히 모시니
일월과 더불어 함께 빛나는구나
龍車를 타고 五帝의 옷을 입고
삼시간에 사방을 周遊하며 떠다니시네
이미 강렬한 빛나는 神은
빠르게 구름 속으로 다시 돌아간다
冀州를 둘러보고도 여유가 있는데
四海를 가로지른들 어찌 끝이 있으랴
떠나간 雲神을 그리며 탄식하니
애타는 가슴엔 아쉬움만 가득하구나

○浴 : 몸을 씻는 것을 浴이라 하고 머리를 감는 것을 沐이라 한다. 제사 전에는

반드시 목욕재계를 하여 신에게 공경함을 보인다. ○蘭湯 : 뜨거운 물에 난초를 넣어 향기를 낸 목욕물. ○芳 : 왕일은 白芷(구릿대)를 가리킨다고 하였다. ○英 : 꽃송이. 혹은 瑛의 가차로 보아 옥으로 풀이할 수도 있다. ○靈 : 雲中君으로 분장한 主巫를 가리킨다. ○連蜷 : 부드럽고 유연한 모습. 이는 구름이 하늘에서 풀어지는 모습과 主巫의 완만한 춤을 동시에 묘사한 것으로 그 일체성을 나타내었으며, 신 내림 하는 미묘한 순간을 포착하고 있다. ○既留 : 이미 머물다. 降神하다. ○爛昭昭 : 爛은 찬란하다. 昭昭는 밝디밝다. 고대에는 제사에 영험이 있으면 神光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未央 : 끝이 없다. ○蹇(견) : 어조사. ○憺(담) : 편안하다. ○壽宮 : 신을 모시는 곳. ○日月齊光 : 구름이 나오면 해나 달이 어두워지고, 구름이 사라지면 해나 달이 밝아지므로 구름이 日月과 더불어 함께 빛난다고 하였다. ○龍駕 : 龍이 끄는 수레. ○帝服 : 五帝를 표시하는 오방색으로 된 옷을 입다. ○周章 : 두루 다니다. 여기서는 이곳저곳을 빠르게 다니는 모습을 형용하였다. ○皇皇 : 煌煌, 빛나다. ○焱(표) : 빠르다. ○冀州 : 고대에 중국을 九州로 나누었는데, 그 첫 번째가 冀州이다. 고대의 제왕은 지금의 河北省인 冀州에 많이 있었으므로 이로써 종종 중국을 가리켰다. ○有餘 : 높은 곳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雲神은 그 바라보는 범위가 중국을 초월한다는 뜻. ○四海 : 九州의 밖에 있는 바다. <離騷>에서는 四荒이라고 하였다. ○思 : 그리워하다. ○夫君 : 夫는 지시사 혹은 어조사로 볼 수 있다. 夫君은 신에 대한 친밀한 호칭. ○勞心 : 憂心. 근심스러운 마음. ○憺憺(충) : 쿵쿵. 걱정하고 불안하여 심장이 뛰는 소리.

천지를 빠르게 오가며 사방을 주유하는 雲神은 日月과 함께 빛나는 존엄한 형상으로 그려졌다. 여기에서는 雲神의 혜택과 백성의 바램을 노래하기보다는 매혹적인 형상을 묘사하고 그리운 마음을 드러내는데 집중하고 있다. 雲神은 그 자체가 순식간에 사방을 떠다니며, 또 제단에 나타났다가 떠나는 것도 삼시간이다. 그래서 포착할 수 없는 神性は 더욱 강렬하며 그에 대한 그리움도 더욱 깊다. 신에 대한 그리움은 본래 초나라 사람들이 구름과 비의 혜택이 응답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에서 나온 것이지만, 그 표현은 사랑하는 사람의 섬세한 마음으로 그려졌다. 이는 《九歌》 전반에 깔린 특징이기도 하다.

湘 君

湘君은 초나라 영토에 있는 지역성을 가진 강 가운데 가장 큰 강인 湘水의男神으로, 湘水의 여신인 湘夫人과 함께 한 쌍을 이룬다. 이는 본래 자연을 인격화하여 숭배하는 표현이었겠으나, 여기에 舜의 전설이 덧붙여지고, 다시 서로를 연모하는 이야기로 발전되었다.

전설에는 舜이 중국의 남방을 순시하던 중에 蒼梧의 들에서 죽어 湘水의 발원지인 九嶷山에 묻힌다. 뒤따라오던 그의 두 처 娥皇과 女英이(본래 堯의 두 딸이었다) 湘水에서 이 소식을 듣고 남쪽을 향해 통곡하고 강물에 몸을 던져 죽었다. 그래서 역대의 많은 《초사》연구자들은 이 신화를 가지고 <상군>과 <상부인>을 해석하였다. 그러나 湘君과 湘夫人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하느냐에 대해선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하다. (1) 湘君은 舜의 두 妃이나, 湘夫人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史記》), (2) 湘君은 舜이고, 湘夫人은 舜의 두 妃이다(《禮記》鄭玄注), (3) 湘君은 水神이고, 湘夫人은 舜의 두 妃이다(王逸), (4) 湘君은 娥皇이고 湘夫人은 女英이다(韓愈), (5) 湘君은 湘水의 신이고 湘夫人은 그 배우자이다(王夫之), (6) 湘君과 湘夫人은 湘山의 부부신이다(趙翼) 등이다. 전설이란 원래 서로 다른 지역과 시대에 걸쳐 다양한 변형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생각할 때, 굴원의 작품 속에 나타나는 상군과 상부인 이야기는 그중 하나로 생각되며, 작품 속의 내용으로부터 상군과 상부인을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군>과 <상부인>의 내용을 보면 湘君과 湘夫人은 한 쌍의 신으로 묘사되었고, 서로를 연모하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또 작품 중에 어디에도 湘夫人이 두 명이라는 표시는 없다. 그러므로 王夫之의 설이 시의 내용에 가장 일치한다고 하겠다.

<상군>은 湘夫人이 湘君을 그리며 부르는 노래이다. 노래 방식은 湘夫人으로 분장한 主巫가 독창한다.

君不行兮夷猶，
蹇誰留兮中洲？
美要眇兮宜修，
沛吾乘兮桂舟。

湘君은 주저하며 오지 않으시며
누구를 위하여 洲島에 머무시는가
나는 華艷하게 치장을 하고
桂舟를 타고 물살 가르며 맞으러 나간다

令沅湘兮無波，
 使江水兮安流。
 望夫君兮未來，
 吹參差兮誰思。
 駕飛龍兮北征，
 遭吾道兮洞庭。
 薜荔柏兮蕙綯，
 蓀橈兮蘭旌。
 望涇陽兮極浦，
 橫大江兮揚靈。
 揚靈兮未極，
 女嬋媛兮爲余太息。
 橫流涕兮潺湲，
 隱思君兮徘徊。
 桂櫂兮蘭枻，
 斲冰兮積雪。
 采薜荔兮水中，
 搴芙蓉兮木末。
 心不同兮媒勞，
 恩不甚兮輕絕。
 石瀨兮淺淺，
 飛龍兮翩翩。
 交不忠兮怨長，
 期不信兮告余以不閒。
 鼉騶驚兮江皋，
 夕弭節兮北渚。
 鳥次兮屋上，
 水周兮堂下。
 捐余玦兮江中，
 遺余佩兮醴浦。
 采芳洲兮杜若，
 將以遺兮下女。
 時不可兮再得，

沅水와 湘水의 물결 잠들게 하고
 長江의 물 고요히 흐르게 하고저
 저기 湘君이 있는 쪽을 바라보나 오지 않으시니
 나는 參差를 불며 누구를 기다리나
 飛龍을 타고 북으로 갔다가
 길을 바꾸어 洞庭湖로 돌아가네
 승검초 깃발에 헤초 깃대
 창포 깃봉에 난초 깃머리
 멀고먼 涇陽을 아득히 바라보니
 長江을 가로질러 빛나는 기운 드러내네
 빛나는 기운 드러내어도 오지 않으시니
 시녀마저 나를 위해 탄식하네
 눈물을 줄줄 흘뿌리고
 湘君을 생각하며 가슴 태우네
 계수 상앗대에 난초 노
 얼음을 깨고 쌓인 눈을 뚫고 나아가네
 물가에 가서 승검초 뜯고
 나무에 올라 부용을 따려는 격
 마음이 안 맞으니 媒婆만 힘들고
 애정이 깊지 않으니 쉽게 멀어지네
 모래 위로 여울물 빠르게 흐르고
 飛龍은 날세게 나아가간다
 사귀었어도 진정이 없으니 원망스럽고
 약속도 믿지 않고 오히려 나더러 여가 없다 하시네
 아침에는 강가에서 배를 달리고
 저녁에는 北岸에서 배를 멈춘다
 새는 지붕 위에 깃들고
 물은 집 앞을 돌아 흐른다
 내 지닌 가락지를 강물에 던지고
 내 두른 패옥을 澧水에 버린다
 아름다운 洲島에서 杜若를 따서
 장차 湘君의 시녀에게 주려고 하네
 만날 기회 다시 얻을 수 없으니

聊逍遙兮容與。

잠시 거닐며 마음을 가다듬고저

○君：湘君을 가리킨다. ○不行：不來와 같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여 한 말이기에 不行이라 했다. ○夷猶：주저하다. ○誰留：누구를 위해 머무르나? 혹은 누가 머무르고 있나? ○中洲：洲中. 洲는 강물 가운데 있는 섬. ○要眇：아름다운 모습. ○宜修：치장을 알맞게 하다. ○沛(패)：물이 빠르게 흐르는 모양. 여기서는 배가 빠르게 나아가는 모양. ○沅湘：沅水와 湘水. 모두 湖南省 경내에 있는 큰 강으로 洞庭湖로 흘러든다. ○江水：양자강. 혹은 앞에 나오는 沅水와 湘水로 볼 수도 있다. ○參差(참차)：악기 이름. 동시에 들쭉날쭉하다는 뜻도 있다. 생황과 비슷한 악기로 여러 개의 관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 이는 또 湘夫人의 마음이 편안하지 않음을 표현한 것이라 풀이할 수도 있다. ○飛龍：용모양의 배, 혹은 용이 끄는 배. 앞에서 말한 桂舟. 이 구의 주체는 湘君을 찾는 湘夫人. ○遭(전)：구비 돌다. <이소>에 나오는 “遭吾道夫崑崙”과 어법이 같다. ○薜荔：승점초. ○柏：이에 대해선 역대의 연구자들 사이에 이견이 많다. 聞一多是 柏은 帕를 잘못 쓴 것이라 하고, 帕는 帛과 통하며 깃발 종류를 말한다고 하였다. ○綱：짜다는 뜻. 깃대를 감아 짜다. ○橈(요)：구부러진 나무. 깃대 위의 부분을 나타낸다. ○涪陽(잠양)：지명. 지금의 湖南省 澧縣에서 가까운 涪水의 북안으로 동정호 서북안과 양자강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極浦：먼 나무. ○揚靈：湘夫人이 顯神하면서 빛을 낸다. ○未極：極은 끝에 이르다는 뜻으로, 여기서는 이르다는 뜻. 혹은 揚靈이 湘君의 처소에 이르지 않았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도 있다. ○女：湘夫人의 시녀. ○嬋媛：“擘擘”(탄환)의 假借로 “두려워 숨이 넘어가다”는 뜻. 여기서는 숨을 몰아쉬다는 뜻. ○隱：모르게. ○隄側(비측)：湄側의 가차. 슬프다. ○擘(건)：초나라 방언으로 따다. ○木末：나뭇가지 끝. 여기의 “물가에 가서 승점초 뜯고, 나무에 올라 부용을 따다”는 것은 불가능함을 비유한 것으로 湘君을 만나기가 어려움을 말하고 있다. ○瀨(퇴)：돌 위의 급류. ○淺淺：물이 빠르게 흐르는 모양. ○期：약속하다. ○不聞：여가가 없다. ○鼂：朝와 같다. 아침. ○騁騫(빙무)：《說文解字》에 騁은 直馳이고, 騫는 亂馳라 풀었다. 곧 재빠르게 내달다는 뜻. ○次：머무르다. 또 삼일 이상 밤을 지낸다는 뜻도 있다. 여기의 “새는 지붕 위에 깃들고,

물은 집 앞을 돌아 흐른다”는 상부인이 여러 날에 걸쳐 기다린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捐(연) : 버리다. ○玦 : 고리 모양의 옥. ○遺(유) : 버리다. ○醴浦 : 澧水(례수)라고 하기도 한다. 동정호로 흘러드는 강물. 醴浦는 澧水의 강가. ○下女 : 湘君의 시녀. 湘君에게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하녀를 통해 준다는 뜻. ○容與 : 편안하고 한가한 모양.

<湘君>은 상군을 연모하는 상부인의 마음을 표현하였다. 제사에서는 춤추고 노래하고 동작을 지으면서 상군을 찾아 배회하고, 기다리고, 원망한다. 동시에 자신의 변하지 않는 마음을 노래한다. 이 작품에서 상군은 정면으로 서술의 대상이 되지 않고 전적으로 상부인의 입을 빌어 묘사된다. 이러한 간접적인 제사야말로 神性의 특징을 잘 드러내며, 그 연모의 정 또한 측량할 길 없이 깊게 한다.

湘夫人

<상부인>은 상수의 여신을 제사지내는 노래이다. 이 작품의 전체적인 구성과 내용은 <상군>과 유사하며 서로 대응을 이룬다. 湘君으로 분장한 男巫가 독창한다.

帝子降兮北渚,
日眇眇兮愁予。
嫋嫋兮秋風,
洞庭波兮木葉下。
登白蘋兮騁望,
與佳期兮夕張。
鳥萃兮蘋中,
罾何爲兮木上。
沅有芷兮醴有蘭,
思公子兮未敢言。
荒忽兮遠望,
觀流水兮潺湲。
麋何食兮庭中？

堯임금의 딸 湘夫人이 北岸에 강림했으나
희미한 모습에 나 湘君을 근심스럽게 하네
가을 바람 하늘하늘 불고
洞庭湖에 물결 일고 나뭇잎 떨어지네
蘋草 위에 서서 멀리 바라보며
佳人과의 기약 위해 황혼을 준비하네
새들은 왜 마름풀 위에 모이고
그물은 왜 나무 위에 걸려있나
沅水에는 구릿대. 澧水에는 난초
湘夫人을 그리워하나 감히 말하지 못하네
멀리 바라보니 아득하기만 하여
잔잔히 흐르는 물줄기만 바라본다
산에 있어야할 사슴은 어찌하여 정원에서 먹이 찾코

蛟何爲兮水裔？
 朝馳余馬兮江皋，
 夕濟兮西澨。
 聞佳人兮召予，
 將騰駕兮偕逝。
 築室兮水中，
 葺之兮荷蓋。
 搴壁兮紫壇，
 播芳椒兮成堂。
 桂棟兮蘭橈，
 辛夷楣兮藥房。
 罔薜荔兮爲帷，
 擘蕙櫛兮旣張。
 白玉兮爲鎮，
 疏石蘭兮爲芳。
 芷葺兮荷屋，
 繚之兮杜衡。
 合百草兮實庭，
 建芳馨兮廡門。
 九嶷嶺兮並迎，
 靈之來兮如雲。
 捐余袂兮江中，
 遺余襟兮醴浦。
 牽汀洲兮杜若，
 將以遺兮遠者。
 時不可兮驟得，
 聊逍遙兮容與。

깊은 못에 있어야할 교통은 어찌하여 강가에 나왔나
 아침에는 강가에서 내 말을 지치다가
 저녁에는 서쪽에 있는 물가를 건너간다
 들었나니 佳人 이 나를 불러
 장차 수레 타고 함께 멀리 간다는 것을
 물 가운데 집을 짓고
 연잎으로 지붕을 덮으리
 창포로 벽을 꾸미고 紫貝로 정원을 장식하고
 향기로운 산초꽃을 집 가득 뿌리리
 계수 들보에 난초 서까래
 목련나무 문머리에 구릿대 침실
 승검초 엮어 휘장을 만들고
 혜초를 갈라 처마에 펼치리
 백옥으로 鑽石을 만들고
 石蘭을 흩어 香具를 만들리
 연잎 지붕 위에 구릿대를 덮고
 집 주위를 杜衡으로 두르리라
 온갖 향초를 모아 뜰 가득 채우고
 향목으로 만들어진 대문을 세우리라
 九嶷山의 諸神들 분분히 나와 맞이하니
 신령들 오는 모습 마치 구름 같구나
 나의 옷소매 잘라 강에 버리고
 나의 홑옷 澧水에 던지네
 洲島에서 杜若을 뜯어다가
 멀리 있는 그에게 드리고져
 만날 기회 자주 얻을 수 없으니
 잠시 거닐며 마음을 가다듬고져

○帝子：湘夫人. 신화 중에 堯의 딸이었으므로 帝子라 하였다. 고대에는 여자도 '子'라 부를 수 있었다. ○北渚：북쪽의 물가. <湘君>의 "저녁에는 北岸에서 배를 멈춘다"(夕弭節兮北渚)와 호응한다. ○目：바라보다. 동사로 쓰였다. ○眇眇(묘)：멀리 바라보는 모습. ○嫋嫋(뇨)：하늘하늘, 기늘고 길며 부드러운 모양.

○洞庭 : 동정호. 호남성 북부에 있다. ○波 : 물결이 일다. 동사로 쓰였다. ○白蘋 : 향부자와 비슷한 풀로 가을에 강가에서 자란다. ○騁望 : 멀리 바라보다. ○佳 : 佳人, 즉 상부인. ○張 : 진설하다. ○葦 : 모이다. ○蘋 : 개구리밥. 수면에 뜬 네 잎이 밭 전(田) 자를 이루어 '전자초'(田字草)라고도 한다. ○罿(중) : 나무 막대로 네모꼴을 만들어 만든 그물. ○沅 : 沅水. "沅水에는 구릿대 澧水에는 난초"는 모두 상부인의 아름다움을 향초로 비유한 것이다. ○公子 : 상부인을 가리킨다. 고대에는 군주나 제후의 딸도 公子라 부르기도 했다. ○荒忽 : 恍惚, 아득하고 희미하여 잘 보이지 않는 모양. ○潺湲(잔원) : 물이 끊임없이 졸졸 흐르는 모양. ○粲(미) : 큰 사슴. ○蛟 : 뱀이 없는 용. ○水齧 : 물가. "산에 있어야할 사슴은 어찌하여 정원에서 먹이 찾고, 깊은 못에 있어야할 교룡은 어찌하여 강가에 나왔나"는 자신의 행동을 비유한 것으로, "아침에 강가에서 내 말을 몰고, 저녁에는 서쪽 물가를 건넌다"는 것이 모두 소득 없이 헛됨을 나타낸다. ○西澁(서서) : 서쪽의 물가. ○葦(죽) : 띠풀로 집을 짓다. 여기서는 집을 짓다는 뜻. ○紫壇 : 紫는 紫貝, 壇은 정원. 紫壇은 자패로 장식한 정원. ○櫟(료) : 서까래. ○辛夷 : 목련. ○楣 : 문머리. ○藥 : 구릿대. ○罔 : 網, 엮다. ○擗(벽) : 쪼개다, 가르다. ○櫂(면) : 처마. ○石蘭 : 山蘭. ○繚(료) : 감다. ○實庭 : 마당을 채우다. 實은 동사로 쓰였다. ○無門 : 행랑채와 문. 즉, 건물의 통칭이다. ○靈 : 九嶷山の 여러 신. "九嶷山の 諸神들 부분히 나와 맞이하"는 것은 상군이 상부인과 함께 살게 될 때의 정경을 상상하여 하는 말이다. ○襟(겹) : 홑옷. ○汀洲 : 강물 가운데의 섬. ○驟得 : 자주 얻다.

상부인을 기다리고 찾는 상군의 노래이다. <상군>에서와 마찬가지로 <상부인>에서도 기다리는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가지 노력은 수포로 돌아간다. 두 신의 서로를 찾는 만남은 비록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두 작품이 있음으로 해서 애정은 더 없이 절실하며 서로는 언제까지나 마주 보고 있게 된다.

大司命

大司命은 사람의 生命을 주관하는 신이다. 大司命은 사람의 生死를 관장하고,

少司命은 아이의 운명을 관장한다.

王逸, 五臣, 洪興祖 등은 대사명을 하늘의 별이름으로 풀이하였다. 《周禮·大宗伯》에 나오는 “불을 지피어 司命을 제사한다”는 말에 대해 鄭玄은 “司命은 文昌 성좌의 네 번째 별이다”고 풀이하였다. 《史記·天官書》에도 “文昌 성좌의 네 번째가 司命이다”고 하였으며, 《漢書·郊祀志》에도 “荊州 지방의 巫에 司命이 있는데, 사람들은 文昌 성좌의 네 번째라고 한다”고 하였다. 주석가들은 고대인이 목숨을 관장하는 司命이란 별에 지내는 제사와 <九歌·大司命>을 연결지어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결에 이의를 제기하는 연구가도 있었다. 예컨대, 王夫之는 “鄭玄의 《周禮》 주석은 讖緯家의 말이며, 작품 속에 ‘清氣를 타고 陰陽을 부린다’는 것은 생물을 만들어낸 신을 말하는 것이지 어찌 별 하나를 말하는 것이겠는가?”고 하였고, “大司命과 少司命은 모두 초나라 풍속에서 아이를 점지하기를 바라며 제사한 신이다”고 하였다.

大司命과 少司命의 관계에 대해서는, 正職과 副職의 관계라고 보기도 하고 父子 관계라고 보기도 하지만, 다른 전적에 이에 대한 기록이 없으므로 모두 추측에 불과하다. 王夫之는 “大司命은 사람의 생사를 통괄하고, 少司命은 후손의 유무를 관장한다”고 하였는데 본 시편과 연관하여 볼 때 적절한 해석으로 보인다.

노래 방식을 보면, 大司命으로 분장한 主巫와 관중을 대표하는 群巫가 번갈아가며 노래한다. 앞 8구가 主巫의 독창이고, 다음 4구가 群巫의 합창이며, 다음 8구가 다시 主巫의 독창이며, 끝 8구가 群巫의 송신곡에 해당한다.

廣開兮天門，
紛吾乘兮玄雲。
令飄風兮先驅，
使凍雨兮灑塵。
君迴翔兮以下，
躡空桑兮從女。
紛總總兮九州，
何壽夭兮在予！
高飛兮安翔，

하늘의 문 활짝 열고
분분히 구름 타고 내려가리라
폭풍을 앞세워 달려가게 하고
폭우를 일으켜 먼지를 적시리라
大司命이 천천히 휘돌아 강림하며
空桑山을 넘어와 백성들과 함께 하네
저 광활한 九州의 모든 생명들
장수와 단명이 나에게 맡겨졌구나!
높이 날아오르다가 조용히 휘돌며

乘清氣兮御陰陽。
 吾與君兮齋速，
 導帝之兮九坑。
 靈衣兮被被，
 玉佩兮陸離。
 壹陰兮壹陽，
 衆莫知兮余所爲。
 折疏麻兮瑤華，
 將以遺兮離居。
 老冉冉兮既極，
 不寢近兮愈疏。
 乘龍兮鱗鱗，
 高駝兮冲天。
 結桂枝兮延姁，
 羌愈思兮愁人。
 愁人兮奈何，
 願若今兮無虧。
 固人命兮有當，
 孰離合兮可爲？

清氣를 타고 陰陽을 부린다
 우리는 大司命과 나란히 날며
 그를 인도하여 九州를 돌아보리
 구름 옷은 너울너울 휘날리고
 패옥들은 눈부시게 빛나네 /
 陰이 되고 陽이 되는 生死의 변화
 사람들은 내 하는 바를 알지 못하네
 옥같이 하얀 神麻꽃을 따서
 세상사람들에게 건네주리라
 그대들 늙음이 시나브로 이르렀나니
 친해지지 않으면 갈수록 소원해지리
 龍車를 타고 바퀴 소리 우렁우렁 내면서
 높이 달려 하늘을 찌르며 가버리네
 계수 가지 안아들고 아득히 바라보며
 그리워할수록 더욱 마음 아프네
 마음 아파한들 어쩔 수 없는 일
 다만 앞날도 오늘 같이 마음 다할 뿐
 본디 인명은 정해져 있으니
 누가 만나고 헤어짐을 좌우하리오

○天門：하늘의 문. 上帝가 사는 紫微宮의 문이다. 漢代 노래에 “天門開，誅蕩蕩”이란 가사가 있다. ○紛：분분히. 많은 모양. ○吾：나. 大司命의 자칭. ○飄風：돌개바람. ○凍雨：폭우. ○君：大司命을 가리킨다. 大司命으로 분장한 主巫가 신내림 되어 단상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다. ○下：내려오다, 강림하다. ○踰：넘다. ○空桑：신화 중에 나오는 산. 《山海經·東山經》에 “《東次二經》의 첫머리가 空桑山인데, 북쪽으로 食水에 면하고, 동쪽으로 沮吳를 바라보고, 남쪽으로 沙陵을 바라보고, 서쪽으로 潛澤을 바라보고 있다”는 기록이 있다. ○女：汝와 같다. 너. 여기서는 群巫를 가리키며, 실제 내용으로는 세상 사람들을 말한다. ○紛總總：많은 모양. 세상에 사람이 많음을 나타낸다. ○九州：이 세상을 가리킨다. 九州에 대해서는 《尚書·禹貢》에서 말하는 冀州, 豫州, 雍州, 揚州, 兗州, 徐州, 梁洲, 青州, 荊州 등 고대 중국의 아홉 개의 행정구역을 가리키는 것

외에, 《淮南子·墜形訓》에서 말한 神州, 次州, 戎州, 兪州, 冀州, 臺州, 濟州, 薄州, 陽州 등 大九州가 있다. ○何 : 누구. “何壽夭兮在子!”에 대해 왕일과 주희는 九州의 사람이 진실로 많은 탓에 그 생사는 사람들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지 “장수와 단명이 어찌 나에게 달려 있느냐”고 겸손의 뜻으로 말한 것으로 보았다. ○清氣 : 하늘의 맑은 기운. ○陰陽 : 陰氣와 陽氣. 고대 중국인은 우주의 모든 사물의 발전과 변화는 음과 양 2개의 기의 운행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음이 죽음을 주관하고 양이 삶을 주관한다는 왕일의 주석에 따라 ‘생사를 관장한다’는 뜻으로 풀이하는 것이 타당하다. ○挀 : 群巫가 자신들을 부르는 말. ○與 : 따르다. ○齋速 : 齊速 나란히 빠르게 나아가다. ○導 : 이끌다. ○帝 : 大司命. ○之 : 가다. ○九坑 : 九崗과 같은 말로 九州의 山. ○靈衣 : 《北堂書鈔》와 《太平御覽》의 인용구에는 “雲衣”라 되어 있다. 구름무늬가 있는 옷 혹은 구름으로 만든 옷. 《九歎·遠逝》에도 “服雲衣之披披”라는 표현이 있다. ○被被 : 披披. 너울너울. 옷이 나부끼는 모양. ○陸離 : 형태와 색채가 아름답고 특이한 모양. 울긋불긋. 광채가 빛나는 모양. ○壹陰壹陽 : 한번 음이 되고 한번 양이 되다. 즉, 그 변화가 빠르고 끝이 없다. 陰과 陽은 위에서 말한 生과 死. ○疏麻 : 왕일은 “神麻”라고 풀이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며 어떤 의미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후대의 시인들은 이 구로 해서 疏麻의 意象을 이별과 결부하여 사용하였다. ○瑤華 : 옥같이 하얀 꽃. 大司命이 神麻의 하얀 꽃을 따서 사람에게 준다는 것은 長壽를 내린다는 뜻. ○離居 : 떨어져 사는 사람. 大司命이 인간세계를 곧 떠나므로, 천상세계에 대비해 인간세계의 사람을 離居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冉冉(염) : 시나브로.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既極 : 이미 이르다. 極은 <湘君>의 “揚靈兮未極”의 極과 같은 뜻. 이후 8구는 群巫가 大司命의 떠남을 아쉬워하여 부르는 노래. ○寢近 : 조금 가깝다. 즉 친근해지다. ○麟麟(린) : 털거덕털거덕. 수레바퀴가 굴러갈 때 나는 소리. ○延佇(연저) : 우두커니 서서 바라보다. ○無虧 : 왕일은 “지금과 같이 쉬지 않고 선행을 하다”로 풀이하였고, 주희는 “뜻과 행동에 있어 결함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하였다. 蔣驥는 “지금과 같이 앞으로도 대사명을 모시는 제사를 빼지 않고 예의를 다하여 지낸다”고 하였다. ○當 : 常. 일정한 법칙. ○離合 : 대사명과 만나고 헤어지는 것. 후자는 이를 사람의 생사로 풀이하기도

한다. 그러면 위의 無虧를 “병 없다”는 뜻으로 해석하여, 끝 3구는 “다만 앞날도 지금과 같이 건강하고 병 없기를 / 본디 인명은 정해져 있으니 / 누가 생사를 좌우 하리오”라고 풀이할 수 있다. 그러나 《九歌》가 전반적으로 사람과 신, 신과 신과의 만남을 그리워하는데 집중하는 것으로 보아 전자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고대인에게 있어 사람의 생명현상과 삶과 죽음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왜 태어나고 죽는지, 왜 사람에게 따라 장수와 단명이 다른지 알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 <大司命>은 이러한 생사관을 반영하고 있다. 사람들은 생명의 연장을 바라며 경건하게 기도하지만 동시에 사람의 수명은 정해져 있어 어쩔 수 없다는 심리도 있다. 이러한 모순된 심리 속에 大司命은 지극히 엄숙하고 권위적인 형상으로 군림하며 사람들은 그를 그리워하며 소박한 바램을 노래한다.

少司命

少司命에 대해서는 大司命과 함께 별이름으로 보는 설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洪興祖는 “《晉書·天文志》에 ‘三臺의 여섯 별은 두 개씩 모여 있는데, 서쪽에 文昌 가까운 두 별이 上臺로 司命이며 목숨을 주관한다.’ 이런 까닭에 두 개의 司命이 있다”고 하였다. 청대에 들어서 이와 다른 논의가 많아졌다. 蔣驥는 남녀의 인연과 사랑을 관장하는 신이라 하였고, 戴震은 재앙과 길조를 관장하는 신이라 하였으며, 王夫之는 아이를 점지하고 그 운명을 관장하는 신이라 하였다. 본편의 내용과 관련하여 볼 때 王夫之의 설이 가장 적절하다.

大司命의 性別 형상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남성으로 보는데 일치하지만, 少司命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少司命이 아이를 점지하는 신이란 점에서 인자하면 서도 강인한 여신의 모습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노래 방식을 보면, 관중을 대표하는 群巫와 少司命으로 분장한 主巫가 번갈아가며 노래한다. 앞 6구가 群巫의 영신곡이고, 다음 8구가 主巫의 독창이며, 다음 4구가 다시 群巫의 합창이며, 다음 4구가 主巫의 독창이며, 끝 4구가 群巫의 송신곡에 해당한다.

秋蘭兮麝蕪，
羅生兮堂下。
綠葉兮素枝，
芳菲菲兮襲予。
夫人自有兮美子，
蓀何以兮愁苦！
秋蘭兮青青，
綠葉兮紫莖。
滿堂兮美人，
忽獨與余兮目成。
入不言兮出不辭，
乘回風兮載雲旗。
悲莫悲兮生別離，
樂莫樂兮新相知。
荷衣兮蕙帶，
儵而來兮忽而逝。
夕宿兮帝郊，
君誰須兮雲之際？
與女沐兮咸池，
晞女髮兮陽之阿。
望美人兮未來，
臨風悅兮浩歌。
孔蓋兮翠旒，
登九天兮撫彗星。
竦長劍兮擁幼艾，
蓀獨宜兮爲民正。

秋蘭과 궁궁이
제당 아래에 나란히 피었네
푸른 잎에 흰 꽃
질은 향기 내 몸에 스며드네
사람마다 훌륭한 아이가 있거늘
少司命 그대 어찌 근심하나
秋蘭은 무성하고
푸른 잎에 자주빛 줄기라네
제당에 가득 찬 미인들
오직 나와 눈빛으로 정을 나누네
들어설 때나 나갈 때나 말도 없이
바람 타고 구름 깃발 세우고 떠나가네
슬픈 일 가운데 생이별보다 더 슬픈 일 없고
기쁜 일 중에 새 사귄보다 더 기쁜 일 없네
연잎 옷에 혜초 띠 두른 그대
홀연히 왔다가 삼시간에 떠나네
저녁에 天帝의 들에서 묵으면서
그대는 구름 끝에서 누구를 기다리나
너희들과 咸池에서 머리 감고
너희들과 陽谷에서 머리를 말리려 하나
미인을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
바람을 맞으며 크게 노래 부른다
공작 깃털 車蓋에 물총새 깃털 깃발
九天에 올라 혜성을 들고惡을 쓸어버리리
한 손에는 장검 들고 다른 손에 아이 안은
오직 少司命만이 백성의 주인될만 하나니

○麝蕪(미무) : 麝蕪. 芎藭이라고도 한다. 잎에서 향기가 나며 8월 하순에서 9월에 하얀 꽃이 핀다. ○堂 : 祭堂. ○素枝 : 어떤 판본에는 素華라 되어 있다. ○美子 : 아름다운 아이. ○蓀 : 창포. 葍이라고도 쓴다. 여기서는 少司命을 가리킨다. <楚辭>에는 향초로 왕이나 신을 가리키는 경우가 있는데, <離騷>에 “葍不察余之中情兮”, <九章·抽思>에 “數惟蓀之多怒”, “願蓀美之可完” 등이 그 예이다. 여기

서 “少司命 그대 어찌 근심하나”고 한 것은 사람들에게 이미 아이들이 있으니 少司命은 자신의 직책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걱정하지 말고 안심하고 제단으로 강림하라는 뜻으로 하는 말이다. ○青青：菁菁의 가차. 무성하다. ○美人：群巫를 가리킨다. ○余：나. 少司命이 자신을 가리킨다. ○目成：눈빛으로 마음을 표시하다. ○辭：떠나다. ○生別離：이별의 감정이 깊어 생생하다는 뜻. 혹은 死別과 대비되는 말로, 살아 있는 사람과 영 헤어지는 것을 말하기도 한다. ○儻(숙)：갑자기.忽과 같은 뜻이다. ○帝郊：帝는 天帝. 帝郊는 하늘나라의 교외. ○誰須：즉 須誰. 부정대명사의 선행용법. 須는 기다리다. 群巫가 합창하는 이 4구는 少司命이 구름 끝에 외롭게 머물 바에야 왜 더 있지 않고 삼시간에 왔다가 떠나가느냐고 묻는 말로, 少司命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고 있다. 원래는 이 구 다음에 “與女遊兮九河, 衝風至兮水揚波”가 있었으나 洪興祖는 <河伯>에 있는 말이 끼어 잘못하여 들어왔다고 했다. 馬茂元은 이 2구를 포함하여 다음 4구조차 잘못 끼어 들어온 것으로 추측하였다. ○女：汝, 너 혹은 너희들. 이 구부터 4구는 主巫의 독창으로 여기서 ‘너희들’은 群巫를 가리킨다. ○咸池：신화 중의 연못으로 태양이 목욕하는 곳. <離騷>에 “飲余馬於咸池兮”이란 말이 나온다. ○晞：말리다. ○陽之阿：남향진 산자락. 혹은 신화 속에 태양이 지나가는 曲阿나 陽谷으로 보기도 한다. 여기서는 후자를 따랐다. ○美人：바로 앞의 女로 여기서는 여인을 대표하는 群巫. ○恍：恍. 즉 恍惚. 멍한 모습, 혹은 실의한 모습. ○浩歌：큰 소리로 노래하다. ○孔：孔雀. ○翠：물총새. ○旒(정)：旒와 같은 글자. ○九天：하늘. ○彗星：태양을 도는 혜성. 고대 중국에서는 혜성의 꼬리로 인해 빛자루 같다고 하여 掃帚星이라고 하였으며 재난을 쓸어낸다고 생각하였다. ○竦(송)：내밀다. 들다. ○幼艾：어린아이. ○蓀：少司命을 가리킨다. ○正：관직의 長. 民正은 백성의 주인.

작품의 앞뒤 부분에 少司命에 대한 예찬이 있고 중간 부분은 사람과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 내용이 섞여 있는 관계로, 어느 작품보다 少司命의 직능, 성별, 사람과의 관계 등에서 해석이 분분하고 논란이 많다. 目成, 生別離, 誰須 등의 어휘에서 男神과 美人과의 사랑을 금방 연상할 수 있으나, 男神은 머리를 감고 아이를 안은 모습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작품이 지닌 여러 요소로 인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현존하는 자료가 부족한 관계로 많은 연구가의 해석이

믿기 어려운 점이 많다. 좀더 설득력 있는 것으로는 이 작품을 아이를 점지하는 여신과 인간세계의 여인들과의 관계로 보는 것이다.

東 君

東君은 태양신이다. 先秦 시대에 이미 태양신에 제사지내는 祭日 의식이 있었고, 《爾雅》나 《山海經》 등에 羲和에 대한 기록이 있다. 태양신을 東君이라 한 것은 초나라 특유의 호칭으로 한나라 때에도 계속 사용하였다.

현재 <東君>은 왕일의 《楚辭章句》에 따라 <少司命> 다음에 놓여 있지만, 원래는 <東皇太一> 다음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史記·封禪書》와 《漢書·郊祀志》에는 똑같이 “晉巫祠五帝, 東君, 雲中君”이라 되어있다. 또 《史記索隱》에도 왕일의 주를 인용하여 “東君, 雲中君見《歸藏易》”이라 하고 있어(현본 왕일주에는 이 구절이 없다), 東君과 雲中君이 연칭되었음을 알 수 있다.

노래 방식은 東君으로 분장한 主巫와 관중을 대표하는 群巫가 번갈아 가며 노래한다. 앞 10구는 主巫의 독창이며, 중간 8구는 群巫의 합창이며, 끝 6구는 主巫의 독창이다.

噉將出兮東方，
照吾檻兮扶桑。
撫余馬兮安驅，
夜皎皎兮既明。
駕龍輻兮乘雷，
載雲旗兮委蛇。
長太息兮將上，
心低徊兮顯懷。
羌聲色兮娛人，
觀者憺兮忘歸。
絃瑟兮交鼓，
簫鐘兮瑤篴，

아침 해 동방에서 솟아올라
내 궁전의 扶桑 난간 비추는구나
말등을 어루만지며 천천히 올라가니
밤은 이미 흰하게 밝았구나
龍車를 모니 바퀴에서 우레 소리 울리고
雲旗를 꽃으니 굽이굽이 펄럭인다
길게 탄식하며 장차 하늘에 오르려니
마음은 낮게 배회하며 무엇인가 주저한다
노래와 춤으로 사람을 즐겁게 하니
보는 이들 즐거워 돌아갈 것을 잊네
거문고 발을 높이고 마주 보고 북을 두드리며
종걸이가 흔들리도록 종을 치고

鳴篴兮吹竽，
 思靈保兮賢姝。
 翺飛兮翠會，
 展詩兮會舞。
 應律兮合節，
 靈之來兮蔽日。
 青雲衣兮白霓裳，
 舉長矢兮射天狼。
 操余弧兮反淪降，
 援北斗兮酌桂漿。
 撰余轡兮高駝翔，
 杳冥冥兮以東行。

피리를 울리고 생황을 불자
 저 神巫는 선량하고도 아름답나니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 물총새처럼
 시를 노래하며 춤을 추네
 노래는 음률에 맞고 춤은 박자에 어울리니
 東君과 시종神들이 해를 가리도록 많이 내려오네
 푸른 구름 옷에 흰 무지개 치마
 긴 화살을 들어올려 天狼星을 쏘고
 활을 잡고 몸을 돌려 서쪽으로 내려가
 北斗를 거머쥐고 桂酒를 따라 마신다
 말고삐를 잡고 높이 날아올라
 어두운 밤하늘을 동쪽으로 달려간다

○噉(돈) :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 왕일은 환하다는 형용사로 풀이하였지만 첫 구에 주어가 없으므로 이를 태양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挀 : 東君의 자칭이다. ○扶桑 : 신화 중의 거대한 나무의 이름으로 태양이 떠오르는 곳. <離騷>에 “總余轡乎扶桑”라는 구가 있다. ○余 : 東君의 자칭이다. ○皎皎 :皎皎와 같다. 환하게. ○輶(주) : 끌채. 여기서는 수레를 지칭한다. ○委蛇(위이) : 구불거리는 모양. ○低徊 : 차마 떠나지 못하는 모양. ○顧懷 : 돌아보고 주저하다. ○檐(담) : 편안하다. ○緗瑟(궁슬) : 거문고 줄을 팽팽하게 하다. ○交鼓 : 마주 보고 북을 두드리다. ○簫 : [才+簫]의 가차. 두드리다. ○瑤 : 搖의 가차. 흔들다. ○篴(거) : 악기틀. ○篴(호) : 횡적과 비슷한 관악기로 구멍이 8개 있다. ○竽 : 생황의 일종. ○靈保 : 巫를 가리킨다. 여기서는 東君으로 분장한 主巫. 王國維는 <宋元戲曲史>에서 ‘靈은 神과 巫를 통칭하여 노래하고 춤추는 巫 혹은 신으로 분장한 巫을 모두 가리킬 수 있는데, 신으로 분장한 巫를 전적으로 지칭할 때는 ‘靈保’라고 한다고 하였다. ○翺(현) : 가볍게 날다. ○會 : {會+羽}의 가차. 날개를 들다. ○展詩 : 시를 펴들고 노래하다. ○會舞 : 모여 춤추다. ○靈 : 神. 여기서는 東君과 그를 따르는 시종신들. ○矢 : 화살. 汪瑗은 矢를 별이름으로 보았다. ○天狼 : 天狼星. 고대 중국인들은 天狼星은 재난을 만드는 별이라고 생각하였다. 徐文靖은 天狼星을 秦나라를 비유한다고 하였다. 이 별의 分野가

秦나라 지역이며 또 당시에는 秦나라를 ‘虎狼之國’이라고 하였다. 게다가 弧矢星은 天狼星의 동남쪽에 있는데 이는 秦이 楚의 서북에 있는 것과 일치한다. ○弧 : 활. 역시 별이름이기도 한데 위의 矢와 함께 9개의 별이 모여 활 모양의 성좌를 이룬다. 이 弧矢星은 天狼星의 동남쪽에서 天狼星을 겨누고 있는 모양이다. 도적 방비를 주관한다. ○淪降 : 태양이 서쪽으로 떨어지다. ○撰 : 들다, 잡다. ○杳冥 : 어두컴컴한 모양.

태양은 어느 자연물보다도 선명하고 강하기 때문에, 태양신을 예찬하는 이 祭歌 역시 그 비유가 분명하고 강력하다. 천공을 가로지르는 위엄 있고 빛나는 모습이 전편을 주도하며, 제사 장면이 <東皇太一>처럼 활기차다.

河 伯

河伯은 黃河의 신이다. 황하의 신에 대해선 고대의 기록이 많은데, 《山海經》에 “冰夷”, 《莊子》에 “馮夷”, 《淮南子》에 “馮遲” 등의 이름으로 등장한다. 이들 신화를 종합해 보면, 사람 얼굴에 물고기 몸으로 용을 타고 다니는 馮夷는 삼 백 길 깊은 물 속에 살다가 나중에 도를 깨쳐 河伯이 되었다. 연구자들은 전국 시대 이전에 황하를 제사지낼 때는 황하의 신을 ‘河神’이라 불렀으며 ‘河伯’이란 이름은 전국 시대 이후에 나타났다고 말한다.

남방 양자강 중하류에 걸쳐 있는 초나라가 자기의 강역 밖에 있는 황하를 왜 제사지내는가에 대해 연구가들은 주의하였다. 초나라가 황하를 제사지내는 일은 오래되었는데, 《春秋左氏傳》의 魯宣公 12년(기원전 597년) 조에는 “초나라 군대가 다시 郟에 이르렀고, 衡雍에 머물렀다. 황하를 제사지내고, 先君의 궁전을 만들어, 공업을 이룬 사실을 고하고 돌아갔다”는 기록이 있다. 또 魯哀公 6년(기원전 489년) 조에는 楚昭王이 병이 들었기에 점을 쳐보니 황하의 재앙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昭王은 국가의 강역 안의 산천이 아니면 제사지내지 않는다는 주나라에서 규정한 《祀典》을 들며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특수한 예이고 초나라는 일반적으로 황하에 제사를 지냈다. 굴원이 생존할 때는 초나라의

강역이 황하에 가까이 이른 면도 있었지만, 황하의 신은 이미 중국 전토에 보편적으로 존중되어 제사로 모셔졌다.

노래는 河伯으로 분장한 男巫의 독창이 위주인데 중간에 그의 연인인 女巫가 화답한다. 앞 8구의 河伯의 독창이며, 女巫의 물음 3구에 대해 河伯의 답사 3구가 이어진다. 다시 하백의 독창이 이어진 후, 헤어지는 장면인 끝 4구에서 앞 2구는 하백의 말이고 마지막 2구는 여신의 말이다.

與女遊兮九河，
衝風起兮橫波。
乘水車兮荷蓋，
駕兩龍兮驂螭。
登崑崙兮四望，
心飛揚兮浩蕩。
日將暮兮悵忘歸，
惟極浦兮寤懷。
魚鱗屋兮龍堂，
紫貝闕兮朱宮，
靈何爲兮水中？
乘白鼉兮逐文魚，
與女遊兮河之渚，
流澌紛兮將來下。
子交手兮東行，
送美人兮南浦。
波滔滔兮來迎，
魚鱗鱗兮媵予。

너와 함께 九河를 다니며
큰바람 뿜고 파도를 가로지른다
水車에는 연잎 傘蓋 펼치고
두 용이 끌고 두 교룡이 걸말로 간다
곤륜산에 올라 사방을 둘러보니
정신은 호방하게 하늘을 난다
해 저물도록 돌아가길 잊다가
멀고 먼 물가를 그리워한다
비늘로 장식한 방에 용이 그려진 전당
紫貝 박힌 궁문에 주칠한 궁전
河伯은 어이하여 나를 수중 궁궐로 데려왔나
흰 자라를 타고 무너진 고기를 데리고
너와 함께 황하의 洲島를 다니며
출렁이는 해빙수 따라 함께 내려가고저
그대 장차 東으로 떠난다니
내 南浦에서 美人을 보내네
물결 도도히 흘러와 나를 맞으며
물고기들 나를 따라 돌아가리라

○女：汝. 너. 여기서는 河伯이 사랑하는 女神. ○九河：황하의 아홉 줄기 지류. 전설에 의하면 禹가 황하 수리 작업을 하면서 물이 범람하는 것을 막기 위해 兗州에서 아홉 갈래로 나누었다고 한다. 徒駭, 太史, 馬頰, 覆鬴, 胡蘇, 簡, 絮, 鉤, 盤, 鬲津 등이다. 여기서는 황하의 총칭. ○衝風：돌개바람. ○水車：물위를 다니는 수레 혹은 배. ○驂(참)：걸말. 고대에는 네 필의 말이 수레를 끌 때 양 편

바깥의 말을 驂이라 하였다. 여기서는 동사로 곁말로 삼다. “駕兩龍兮驂螭”은 《山海經·海內北經》에 “水夷人面,乘兩龍”이란 말과 유사하다. ○螭(리) : 전설에 나오는 뿔 없는 용. ○崑崙 : 신화에 나오는 산이름. 황하의 발원지. ○浩蕩 : 원래는 물이 드넓은 모양. 여기서는 마음이 넓음을 형용했다. ○惟 : 생각하다, 그러다. ○極浦 : 아득히 먼 포구. 여기서 아득한 포구는 河伯과 女神이 거주하는 곳으로, 하루 종일 九河를 돌며 놀던 河伯은 날이 저물어서야 집에 돌아갈 것을 상기한다. 아래 3구는 女神이 河伯의 처소에 와서 물어보는 말. ○寤懷 : 자나깨나 생각하다. ○紫貝 : 진귀한 조개의 하나로 자주빛 바탕에 검은 점이 있다. ○靈 : 河伯을 가리킨다. ○何爲 : 왜. ○鼉(원) : 자라. ○文魚 : 몸에 무늬가 있는 물고기. 날개가 있어 날 수 있다고 한다. ○流澌 : 얼음이 녹아 흐르는 강물. ○子 : 그대. 이인칭 존칭. ○交手 : 손을 잡다. 헤어지기 전에 손을 잡는 것. ○美人 : 河伯의 연인인 女神. ○南浦 : 하백이 여신과 헤어지는 장소. ○滔滔 : 물이 도도히 흐르는 모양. ○鱗鱗 : 하나씩, 고기 비늘 같이 많은 모양. ○媵(잉) : 고대에 시집가는 여인을 따라가는 시종을媵이라고 했다. 여기서는 동사로 따라가다는 뜻. ○予 : 나. 女神의 자칭.

河伯을 제사지내는 작품이지만 제사지내는 장면이나 기원하는 내용이 없이 河伯의 여행과 사랑에 대해서만 묘사하였다. 고대에 강물의 범람은 큰 문제였기에 강물의 신에게 제사지내는 것이 성행하였고, 많은 경우 여인을 제물로 삼았다. 《史記·滑稽列傳》에는 여인을 河伯에게 시집보내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 작품은 배필을 줌으로써 강물의 신을 즐겁게 한다는 의식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근래의 연구자들은 애매한 이 이야기를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가하였다. 郭沫若은 “내 南浦에서 美人을 보내네”는 바로 黃河의 중류에서 남쪽으로 이어진 洛水를 가리키며,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美人은 洛水의 女神인 宓妃이며, 결국 이 작품은 황하의 남신인 河伯과 낙수의 여신인 宓妃의 사랑을 노래한 것이라고 했다. 游國恩은 ‘送美人’, ‘迎’, ‘媵’등의 말에서 《史記》에 나오는 ‘황하 신의 장가들기’ 이야기를 묘사한 것이라고 했다.

山 鬼

山鬼는 산중의 신, 즉 山神이다. '鬼'라고 한 것은 正神이 아니기 때문이다. 洪興祖는 《〈莊子〉》에 '산에는 夔가 있'(山有夔)고, 《淮南子》에 '산에서는 嘯陽이 나온다'(山出嘯陽)고 하였는데, 초나라 사람들이 제사 지낸 것은 이들이 아닐까?"라고 추측하고 있다. 朱熹도 《〈國語〉》의 '木石의 괴물인 夔와 魍魎'를 말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작품에 나오는 山神은 다정다감하고 어여쁜 어린 소녀의 형상이어서 위에서 말하는 괴이한 귀신들과는 관계가 없어 보인다. 顧成天이 山鬼는 巫山の 神女라 한 이래, 郭沫若과 馬茂元도 "采三秀兮於山間"의 '於山'이 巫山이라며 이에 동의하고 있다.

山鬼로 분장한 女巫가 독창한다.

若有人兮山之阿，
被薜荔兮帶女羅。
既含睇兮又宜笑，
子慕子兮善窈窕。
乘赤豹兮從文狸，
辛夷車兮結桂旗。
被石蘭兮帶杜衡，
折芳馨兮遺所思：
余處幽篁兮終不見天，
路險難兮獨後來。
表獨立兮山之，
雲容容兮而在下。
杳冥冥兮羌晝晦，
東風飄兮神靈雨。
留靈脩兮憺忘歸，
歲既晏兮孰華予。
采三秀兮於山間，
石磊磊兮葛蔓蔓。
怨公子兮悵忘歸，

산자락 아래에 어른거리는 사람 그림자
승검초로 옷 입고 새삼덩굴로 띠 들렀네
흘겨보는 눈매에 어여쁜 미소
그대 나의 이 교태를 연모하는가
붉은 표범 타고 무늬진 살쥬이 데리고
목련 수레에 계화꽃 깃대 꽂았네
석란으로 장식하고 두형으로 띠 두르고
향기로운 꽃 꺾어 그대에게 보내리
깊은 대숲에 살아 해종일 하늘이 보이지 않고
산길 또한 험하여 내 늦게 왔노라
우두커니 산 위에 홀로 서니
구름은 뭉게뭉게 발아래 있네
대낮인데도 산 속은 밤같이 어둡고
동풍이 불어오고 雨神이 비 뿌린다
그대 붙들고 돌아가지 마라고 하려하나
나이가 많으니 누가 나를 꽃으로 만들 것인가
산과 산 사이에서 영지를 캐니
바위는 칩칩하고 칩칩굴은 얽혀있네
그대를 생각하다 내 돌아갈 일 잊는데

君思我兮不得聞。
 山中人兮芳杜若，
 飲石泉兮蔭松柏。
 君思我兮然疑作。
 雷填填兮雨冥冥，
 猿啾啾兮狢夜鳴。
 風颯颯兮木蕭蕭，
 思公子兮徒離憂。

그대도 내 생각에 한가한 시간 없으리
 산중에 사는 이 사람 두약처럼 향기롭고
 석간수 마시고 송백으로 그늘을 드리웠다
 그대 나를 생각하는지 진실로 의심스럽나니
 천둥 우릉우릉 치고 비 어둑이 내릴 때
 원숭이 짹짹거리고 긴 꼬리 원숭이 밤에 울 때
 바람 소소이 불고 나뭇잎 우수수 떨어지는데
 그대 생각에 하릴없이 수심에 잠기네

○若：마치, 비슷하다. ○人：山鬼가 자신을 가리키는 말. ○阿：산자락의 구비진 곳. ○被：披. 입다. ○女羅：松蘿. 새삼덩굴. ○含睇(함제)：눈에 사랑하는 감정을 담고 살짝 흘려 보다. ○宜笑：보기 좋게 웃다. ○子：아래에 나오는 '靈脩', '公子', '君'과 마찬가지로 모두 山鬼가 사모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窈窕(요조)：조용하고 그윽하다. 여인의 태도에서 느껴지는 조용하고 차분한 모양. ○文狸：무늬가 있는 살췍이. ○芳馨：향기로운 꽃. ○表：불쑥. 푹 튀어나온 모양. ○容容：溶溶. 몽게몽게. 구름이 움직이는 모양. ○沓(묘)：어둡다. ○眇：어조사. ○晝晦：낮인데 어둡다. ○神靈：구름 신 ○雨：비를 내리다. ○憺(담)：편안하다. ○晷：늦다. ○華：花와 같다. 여기서는 동사로 꽃으로 피우다, 꽃같이 하다. ○三秀：靈芝. 秀는 꽃이 핀다는 뜻으로, 靈芝는 일 년에 세 번 꽃 피기 때문에 三秀라 했다. ○於山間：郭沫若은 於山을 巫山이라 했다. 그러나 이 작품에는 "雲容容兮而在下"나 "杳冥冥兮羌晝晦"와 같이 '兮'자 다음에 虛字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於도 그러한 허자로 보인다. ○磊磊(뢰)：돌들이 어지러이 쌓인 모양. ○蔓蔓：얼키덩설키덩. 칩이나 등나무가 얽힌 모양. ○公子：山鬼의 연인. ○山中人：山鬼의 자칭. ○然：진실로. ○填填(전)：우릉우릉. 우레 소리. ○啾啾(추)：짹짹. 원숭이 우는 소리. ○狢(유)：긴 꼬리 원숭이. ○颯颯(삽)：휘잉휘잉. 바람 소리. ○蕭蕭：우수수.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 혹은 나뭇잎이 떨어지는 소리. ○離憂：離는 離. 만나다. 근심을 만나다.

아름답고 선량하며 堅潔한 심성을 지닌 소녀가 삼림 속에서 고적한 생활을 하는 모습을 묘사했고, 특히 사랑하는 대상을 연모하는 감정을 그리고 있다. 《九歌》의

地神들이 <湘君>, <湘夫人>, <河伯> 등과 같이 모두 어느 하나의 장소에 속한 신이기 때문에, 근래의 학자들은 <山鬼>도 구체적인 巫山과 결부시키기도 했다.

國 殤

國殤은 나라를 위해 전사한 사람을 말한다. '殤'은 본래 남자가 관을 쓰는 20세 이전에, 여자는 비녀를 꽂는 15세 이전에 죽은 사람을 가리키며, 또 하나는 객지에서 죽는 사람을 말한다. 國殤은 곧 국가의 일로 죽은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모든 전사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蔣驥가 말한 것처럼 지휘자를 가리킨다. 작품을 보면 主將을 위주로 묘사하나 전투 장면과 병사들의 용맹도 함께 노래하였다.

전반 10구는 主將으로 분장한 主巫의 독창이며 후반 8구는 群巫의 합창이다.

操吳戈兮被犀甲，
車錯轂兮短兵接。
旌蔽日兮敵若雲，
矢交墜兮士爭先。
凌余陣兮躐余行，
左騶殪兮右刃傷。
霾兩輪兮繫四馬，
援玉枹兮擊鳴鼓。
天時墜兮威靈怒，
嚴殺盡兮棄原野。
出不入兮往不反，
平原忽兮路超遠。
帶長劍兮挾秦弓，
首身離兮心不懲。
誠既勇兮又以武，
終剛強兮不可凌。
身既死兮神以靈，

오나라 창을 들고 물소 가죽 입고
수레 차축 뒤섞이며 도검이 부딪는다
깃발은 해를 덮고 적병들 구름 같은데
화살 마구 쏟아지고 병사들 앞다퉀다
아군 진지 침범하고 아군 대오 짓밟으니
왼쪽 결말 죽어가고 오른 결말 칼에 상한다
두 바퀴 진흙에 묻히고 네 마리 말은 발이 묶였지만
옥 북채 휘어잡고 북을 둥둥 울린다
天時 불리하여 명령들 목숨 다하며 노하나
끝내 장열히 모두 죽고 들판에 버려졌다
한 번 나간 장사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
들판은 아득하고 길은 멀고 멀다
장검을 차고 秦弓을 낀 채
머리와 몸은 나뉘어도 두려움 없다
진실로 용감하고 무에 뛰어났으니
언제나 강인하고 끝내 능욕할 수 없었으랴
몸은 비록 죽었으나 神은 英靈이 되고

子魂魄兮爲鬼雄。

혼백은 귀신가운데서도 雄傑이 되리라

○操 : 잡다. ○吳戈 : 吳 지방에서 만든 창. 고대에 창은 오 지방에서 가장 잘 만들었다고 한다. ○犀甲(서갑) : 물소 가죽으로 만든 갑옷. ○錯 : 교착하다. ○轂(곡) : 두 수레 바퀴를 연결하는 축. 밖에서 보면 차축이 약간 나와서 췌기를 끼어 빠지지 않게 한다. ○短兵 : 短兵器. 칼이나 창 등을 가리킨다. ○凌 : 침범하다. ○躡(렵) : 밟다. ○行(항) : 대열. ○殪(예) : 넘어져 죽다. ○霾(매) : 埋와 같다. 묻히다. ○繫(집) : 묶다. ○玉杓 : 옥으로 만든 복채. ○威靈怒 : 威武있는 영혼이 죽어서도 노한다. ○嚴殺盡 : 엄혹하게 모두 죽다. ○忽 : 아득한 모양. 희미하여 잘 보이지 않는 모양. ○秦弓 : 秦 지방에서 만든 활. 秦 지방에서는 굳센 나무가 나기 때문에 이로 만든 활은 사정거리가 멀다. ○懲 : 두려워하다. ○武 : 씩씩하고 힘세다. ○終 : 끝까지. ○神以靈 : 영웅이 죽은 다음에 神이 되고 그 威靈이 죽지 않음. ○鬼雄 : 귀신 가운데의 우두머리.

나라를 위해 싸우다 죽어간 영웅들의 숭고한 정신과 강인한 투지를 노래하고 있다. 이들 위령들에 대한 엄숙한 애도는 국가를 위해 설욕을 기대하는 듯 하다. 어떠한 비유도 없이 직접 서술한 노래는 사실성이 뛰어나며 강건하고 질박한 미감으로 장열한 정서를 표현한다.

禮 魂

<禮魂>은 제사를 종결하며 부르는 송신이다. 魂은 곧 神으로, 앞의 10편이 천신과 지신에 귀신까지 포함하고 있으므로 魂이라고 했다. 群巫가 합창한다.

成禮兮會鼓，
傳芭兮代舞，
姮女倡兮容與。
春蘭兮秋菊，
長無絕兮終古。

제례를 마쳤으니 일제히 북을 치자
꽃을 넘겨주며 번갈아 춤을 추고
아름다운 女巫가 단아하게 노래한다
봄 난초와 가을 국화를 바치오니
신령들은 오래오래 영원하소서

○成禮 : 제례를 마치다. ○芭 : 葩. 막 피어난 꽃. 傳芭는 女巫들이 꽃을 들고 춤추다가 옆 사람에게 넘겨주며 계속 춤추는 모습이다. ○姱女 : 아름다운 여인. ○倡 : 唱. 노래하다. 容與는 단정한 모양. 姱女倡兮容與를 한 사람의 행동으로 볼 수도 있고, 혹은 主巫의 선창에 女巫들이 절도 있게 움직인다고 볼 수도 있다. ○春蘭兮秋菊 : 봄의 난초와 가을의 국화를 함께 말한 것은 봄가을 꽃이 필 때에 제사지낸다는 의미이다. ○終古 : 영원하다. 古에는 오래다는 뜻이 있다. 無絶은 제사를 끊이지 않는다는 뜻이다.

《九歌》가 하나의 통합된 祭神歌임을 이 마지막 송신가에서 알 수 있다. 여기서의 신령에 대한 제사는 경건하면서도 즐거워야 하고, 순박하면서도 화려해야 하는 상반된 분위기를 동시에 갖추어야 한다. 제신이 또한 이러한 분위기를 잘 통일하고 있다. 매년 봄가를 신령들에게 제사를 영원히 올린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신령들이 언제까지나 인간에게 공덕을 베풀어달라는 소원이기도 하다.

<參考文獻>

- [東漢]王逸注, [宋]洪興祖補注, 《(楚辭章句)楚辭補注》, 中華書局, 1957年.
 [宋]朱熹, 《楚辭集注》, 上海古籍出版社, 1979年.
 [明]王夫之, 《楚辭通釋》, 上海人民出版社, 1975年.
 [清]蔣驥, 《山帶閣注楚辭》, 中華書局上海編輯所, 1958年.
 [清]戴震, 《屈原賦注》, 中華書局, 1999年.
 馬茂元, 《楚辭選》, 人民文學出版社, 1958年.
 金開誠·董洪利·高路明, 《屈原集校注》, 中華書局, 1996年.